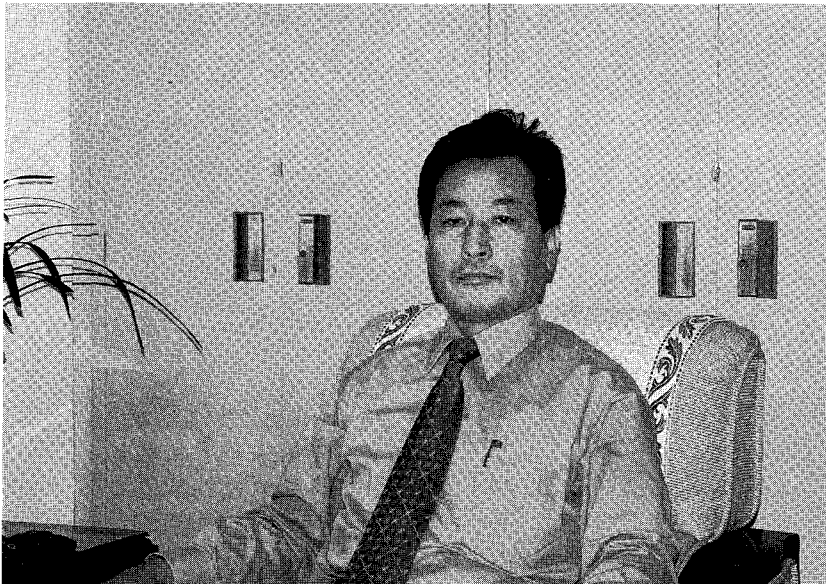


## 생산자, 소비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

◇ 취재 / 김종준 기자

지난 8월 25일 본회 대구·경북지부는 회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조직을 견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대구·경북양계축협 본점 3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따라서 보고는 이날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정길 대구·경북지부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오정길 지부장(본회 대구·경북지부)

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길** : 우리 지부는 1976년 지부를 설립한 이래 25년 동안 양계산업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90년대에 와서 영주지역에는 산란계 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되고 상주, 안동지역은 계약사육 농가가 많

△우선 사무실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이 개소식에 참석한 것을 보니 지부의 영향력

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부 가입회원

은 정회원 100명, 준회원 8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채란분과(위원장 최상목), 육계분과(위원장 장재성), 종계분과(위원장 송인환) 3개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란분과 회원들중에는 채란업의 변화를 전부 겪으면서도 업계를 이끌어 온 분들이 많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지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계분과 사무실을 지부사무실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장재성 육계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구, 상주, 합천 등지의 젊고 경험이 많은 육계 회원들이 힘을 모아 지부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수입 개방이 되면서 매년 양계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산양계산물과 수입산물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북지역 생산자들은 이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정길** : 국내의 계란가격이 70원대 이상을 유지 한다면 수입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수입계란이 시중에 유통되고 국내산과 구별이 안되어 소비자들이 수입계란의 거부감으로 국내산 계란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양계축협의 정성란과 같은 브랜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에 걸맞게 신선한 계란을 생산함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계란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도 우리 회원들이 주도적

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유통상인과 같이 우리 지역의 계란브랜드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란등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계란집하장을 이용하는 회원농가들이 많아지게 되고 회원농가들의 계란품질도 한층 높아지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입산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닭고기 생산에 있어 축협 중심의 계열화가 확대되고, 육계사육 농가에서 이를 적극 참여한다면 대구·경북지역만의 새로운 닭고기 브랜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잘 관리하고 홍보한다면 수입산물과 차별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한 양계산물이 서울시장으로 반출되고 있고, 일부 물량은 대구지역으로 반입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물류상의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양계산물 유통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정길** : 대구광역시에는 계란과 닭고기의 주 소비처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대구 인근의 상주, 왜관, 칠곡, 안동 등에서 1일 5~6만수의 육계를 생산하고 이와 비슷한 물량이 외부로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회원들의 물량만으로는 대구시장의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도 외부로 닭이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하여 대구에서 도계하고 대구에서 닭고기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영주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자체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적고 약 95%를 서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김천, 의성 등 대구주변 지역에서 생산하는 계란은 대구를 주소비처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소비하지 못하는 계란은 서울근교 지역이나 창원, 마산과 같은 경남지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는 대구 지역의 경우 소비물량이 계란생산량의 5~10%를 상회하고 있어 체화물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타지역에서 덩핑 물량이 유입되어 계란 시세를 무너뜨리고 때에 따라서는 계란질이 저하된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런 계란 반입을 막을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부는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결속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오정길** : 지부에 가입한 농가들은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사양관리, 질병관리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비상대책 사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들간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에 특별한 비결이 있기 보다는 상호간의 관심과 잦은 만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향후 비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협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적으로는 영주지역과 대구지역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회원배가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부장님의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길** : 양계산업도 대형화, 전문화 되면서 사양기술이 뒤처지고 경영에 실패한 농가는 낙오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중소형 농가들 중심으로 양계산업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농가들에 대한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경영에 실패하는 농가들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이 빨라지면서 혼자 잘 살 수 있는 산업여건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길만이 우리 양계산업을 진정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지부가 대구경북양계축협 건물로 이전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협회와 축협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함은 생산과 유통이 조화를 이루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해 계란과 닭고기 상품 종류만 몇 천가지이고 신상품과 없어지는 상품이 몇 백가지가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우리도 상품개발을 꾸준히 하고 홍보한다면 양계산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양계산물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표어 및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경북지역의 약 1,000개 양계농가를 전부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들고 이 회원농가가 양계산물 홍보요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양계**